보이스피싱의 진화



이 승 환 의 어드바이스

최근 몇 년 새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사기 가운데 하나는 보이스피싱이다. 전환 한 통으로 사람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순식간에 거액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어느 날 70대의 노신사 김모 씨가 시중은행 창구를 찾았다. 잔뜩 긴장한 표정의 김 씨는 통장에 든 전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 창구 직원은 깜짝 놀랐지만 차분히 용도를 물었다. 김 씨는 횡설수설하며 불안한 모습이었다. 거액의 예금을 갑자기 찾는 데다 노신사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은행원은 보이스피싱을 직감했다.

은행원이 조심스럽게 다시 한 번 묻자 김 씨는 마지못해 "검찰청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며칠 전 집 전화로 검찰 수사관을 자칭하는 사람이 연락했다는 것. 상대방은 "김○○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지금 당장 돈을 인출해 안전계좌로 옮기지 않으면 모두 몰수 당한다"고 다그쳤다. 깜짝 놀란 김 씨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자, 그는 김 씨의 모든 예금을 찾아서 지정된 계좌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김 씨가 망설이자 전화 속 남성은 목소리를 맞춰 이렇게 말했다. "김 선생님, 지금 저희가 도와 드리는 겁니다.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김 선생님도 공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김 씨는 두려운 마음에 결국 지시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김 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은행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사기범은 "은행 직원에게는 말하지 말라, 이 건은 극비 수사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김 씨는 주변 누구의 도움도 구하지 못하고 혼자 속수무책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은행원의 기지 덕분에 김 씨의 돈은 간발의 차로 지켰다. 은행원은 김 씨를 진정시키며 시간을 끄는 동시에 몰래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 후 경찰관들이 은행에 도착했고, 통화 내용을 들은 뒤 사기가 분명함을 확인했다. 경찰관은 "검찰에서 절대 이런 방식으로 돈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며 김 씨를 안심시켰다. 비로소 자신이 속을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 씨는 평생 사기를 당해 본 적 없고, 본인은 그런 일과 거리가 멀다고 믿었다. 그러나 '검찰'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 믿음은 여지없이 흔들리고 말았다. 국가 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자 김 씨는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평소 법을 잘 지켜온 선량한 시민일수록 이런 상황에서는 조급해지기 마련이다. 전화 속 사람이 비록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한 낯선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검찰청 A과장"이라고 밝힌 순간 김 씨의 마음 한켠에는 "설마 검찰이 거짓말을 하겠어?"라는 막연한 신뢰가 생겼다. 사기범은 그 심리를 파고들었다.

이 사례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심리를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첫째 권위 남용 효과다. 사기범은 '검찰청'이란 권위를 내세워 피해자의 복종 심리를 끌어냈다. 둘째, 공포 유발과 긴급성이다. '범죄 연루', '몰수', '체포'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몰아붙였다. 심리적 압박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이다.

"설마 내가 속겠어?"하는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 놓이면 속기 쉽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진실편향'도 교묘히 이용한다. 진실편향이란 특별한 의심거리가 없으면 상대방을 믿는 인간의 보편적 경향이다. 김 씨도 전화를 건 사람이 조목조목 설명을 늘어놓자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 셈이다. 결국 믿음이 생기는 순간 사기의 덫이 덥석 채워진다.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다시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시험에 든 건 시험만이 아니다



기자 수첩

성 채 리 〈건설부동산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교회에 다닌 적은 없지만 명절마다 제사 대신 예배를 드렸다. 독실한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이다. 다른 건 몰라도 주기도문은 외웠다. 어릴 때 '시험에 들다'라는 말의 뜻이 궁금해 찾아보기도 했다.

주기도문의 구절 속 시험은 문제를 푸는 시험이 아니다. 믿음과 양심이 흔들리는 순간이다. 초소형 카메라로 세무사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인공지능(AI)으로 답을 구했다는 수석 합격자 '세무냥이'의 자백 이후 두 시험이 겹쳐졌다.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시험은 가장 어려운 시험에 들었다.

시험만 시험에 든 건 아니다. 작아진 카메라는 시험장 밖 세상도 누비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IP카메라 1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나 사무실 영상을 원격으로 확인하는 기기인 만큼, 보안 허점은 사생활 침해로 쉽게 이어진다.

지난해 여수시에서는 한 남성이 헤어진 동거인의 집에 있던 로봇청소기 카메라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해 집 안을 훔쳐본 일도 있었다. 그가 본 장면은 이후 피해자를 공격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세무냥이' 사건은 모든 시험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며칠 앞두고 터진 일이라 더 민감한 문제였다. 그런데 사생활 노출에는 점점 무뎌지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뉴스가 들리니 '또 그런 일이 있나보다' 하고 넘기기 쉽다.

의심은 시험장 밖으로도 향해야 한다. AI 커닝 사건은 매일 쓰는 기기가 과연 안전한지 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 사생활을 관리하는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초소형 카메라와 AI가 범죄 수단으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최근 한 수능 일타 강사는 AI 커닝 대책으로 항공 보안에 준하는 입실 검사와 전파 차단 등을 언급했다. SF영화를 떠올리는 '세무냥이'의 수법을 보면 당장 지나쳐 보이는 방안도 시도할 법하다. 끝없는 의심이 일상을 더 물들이기 전에 지나치다 싶을 만큼 허점을 찾아야 한다.

시끌시끌했던 2027 수능은 끝이 났다. 하지만 흔들리는 믿음과 양심은 여전하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는 건 기도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 /cr56@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0일 (음 10월 1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약간의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하루입니다. **60년생** 대인관계가 매우 좋아집니다. **72년생** 남쪽 상대와의 의견차이를 인정하세요. **84년생** 직장에서 작은 트러블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 **49년생** 고집을 피우면 주변에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61년생** 많은 것을 기대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3년생**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85년생**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호랑이 **50년생** 자기의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6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74년생** 앞에 너무나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86년생**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토끼 **51년생** 가던 방향을 고집해야 합니다. **63년생**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75년생** 어려울수록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집중하세요. **87년생**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용 **52년생** 현실적이면서 낭만적인 삶을 사세요. **64년생** 너무 무게 잡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76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88년생** 모험심이 생깁니다. 여행을 떠나세요.

뱀 **53년생**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65년생** 신선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77년생** 동쪽에서 귀인이 찾아와 도움을 줍니다. **89년생**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말 **54년생** 바라는 직종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66년생** 역경 없이 보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운세입니다. **78년생**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취직하게 됩니다. **90년생** 원대한 꿈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양 **55년생** 모든 것은 항상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67년생** 말을 생각없이 함부로 내뱉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79년생** 자중함이 좋을 것입니다. **91년생** 남 탓을 하지 마세요.

원숭이 **56년생** 바라는 것은 매우 잘 풀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68년생** 역경을 물리치기는 하나 결실은 만족치 못합니다. **80년생** 아끼지 말고 힘껏 도전하세요. **92년생** 편안한 주말을 보내게 됩니다.

닭 **57년생** 원통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69년생** 사업이 차차 진전이 있습니다. **81년생** 곧 좋은 소식이 오게 됩니다. **93년생** 허욕이나 욕심을 버리고 직책에 충실하여야 나중에 좋을 것입니다.

개 **58년생** 저녁에 잡는 약속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70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82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94년생**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돼지 **59년생** 문어발식 확장은 결국 공멸로 이어집니다. **71년생** 조심과 좌중을 요합니다. **83년생** 아이가 아프면 지체 말고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95년생** 투자는 불길하고 보험 등은 이득을 창출 합니다.



김상회의 四季

운동과 체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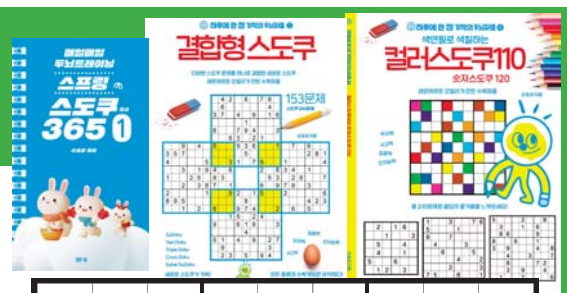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다. 무더운 여름에는 조금만 걸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차지만,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 야외활동을 즐기기에 좋다. 울긋불긋 물든 산을 오르고, 공원에서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늘어난다. 여름 내내 미뤄두었던 운동을 시작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즐겁게 시작한 운동에도 생각지 못한 위험이 숨어있다. 산에 올랐다가 발목을 다치고, 마라톤에 참가했다가 쓰러지며,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했다가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는 것이다. 가을철 산행에서 흔하게 생기는 사고는 낙상과 실족이다. 단풍을 구경하느라 발을 헛디디거나, 젖은 낙엽과 돌에 미끄러질 수 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오고, 하산할 때는 체력이 부족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마라톤이나 오래달리기도 마찬가지다. 날씨가 선선하다고 평소보다 빠르게 달리면 심폐 기능에 과부하가 걸린다. 평소 꾸준하게 운동하던 사람도 준비 없이 장거리를 달리면 근육이 쉽게 지치고 심장 부담이 커진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저마다 타고난 특질이 다르다. 그것이 바로 체질이다. 체질에 따라 근육이 잘 발달하는 사람도 있고, 체력이 태생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다. 운동 능력과 회복 속도 역시 개인마다 차이가 난다. 운동할 때는 이런 체질을 알고는 있어야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팔자학에서도 사람마다 타고난 기운의 구성이 다르다고 본다. 사주에 나타난 오행의 분포와 균형은 개개인의 체질을 잘 보여준다. 타고난 기운의 차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다. 자신의 체질을 이해하고 무리하기 쉬운 습관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체력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더한다면 현명한 운동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3	7			6
4	3							8
		6		8		4		
1					3	5		
			2		9			
		8	5					7
		9		2		6		
5							3	2
7			6	1				9

1	9	3			6		7	
								3
6				8		2		
9				5		3	4	
		6				9		
	4	2		3				5
		5		1				7
3								
	6		9			5	3	8

할인도서

9	4	8	5	1	6	3	2	7
2	3	1	8	9	7	4	6	5
5	7	6	4	2	3	9	1	8
7	9	2	1	6	5	8	4	3
1	8	3	9	4	2	5	8	6
4	5	7	6	3	8	2	9	1
6	1	9	7	4	3	8	5	2
3	2	4	2	5	9	1	7	6
8	6	5	3	7	1	6	3	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39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4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